
일제강점기 부산항 무역의 전개과정 연구

장지용 / 부산대학교 경제통상연구원

目 次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통계자료의 수집과 정비 |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
| III. 부산항 무역의 전개 | |
| 1. 부산항 무역의 개관 | |
| 2. 부산항의 국별, 상품유별 무역의
전개과정 | |

I. 서론

작은 어촌이었던 부산은 1876년 2월 27일에 근대항으로서 제일 먼저 개항한 이후 한국 최대의 항만으로 성장하였다. 2011년을 기준으로 27,943척의 선박이 입항하면서 16,185천 TEU의 컨테이너 화물 처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5위의 항만이다. 이러한 부산항의 성장은 개항 이래 지속적인 것이었고, 해방이후 더욱 강화된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이 확대된 것은 일제강점기라 할 수 있지만, 일제강점기 부산항의 변화과정을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¹⁾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부산항의 변화과정을 추적

하고자 한다. 먼저 산재해 있는 부산항 무역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정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²⁾ 이를 바탕으로 부산항의 변화과정을 장기시계열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통관을 기준으로 한 부산항의 수이출입액의 변화과정, 국별 수이출입, 그리고 상품 종류별(이하 유별) 무역의 변화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부산항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세세한 부분까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산항의 무역통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큰 틀에서의 변화과정조차 규명되지 않았다. 비록 부산항 변화의 속살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하더라도 먼저는 정비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변화과정을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통계자료의 수집과 정비

부산지역 무역에 관한 가장 체계적인 자료는 조선총독부가 1910년도부터 매년 발간한 『朝鮮貿易年表』이다. 모든 세관의 자료를 정리하여 발표한 것으로 1901년부터 1937년까지의 수출입

-
- 1) 거의 유일한 것이 『부산경제사(부산상공회의소, 1989)』의 서술이다. 그런데 부산경제사는 각 시기별로 구분되어 서술되어 있고, 『부산상공회의소 연보(1909)』, 『조선총독부 통계연감』, 『조선경제연감(조선은행조사부, 1948)』 등의 다양한 자료에서 정리된 것을 인용하고 있다. 즉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은 아니었다.
 - 2) 부산항의 통관기준의 통계자료의 정비는 ‘부산경제사 연구회’의 공동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무역은 부경대학교 정이근 선생님이 담당하여 정비하였다. 본 논문에 사용된 1차 자료의 기본적인 수집과 정리 방법, 그리고 정리된 자료는 모두 정이근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이용하였다. 귀중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정이근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총액의 연도별 통계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1900년의 자료는 『統監府統計年報』에서, 그리고 1938~1939년의 자료는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42)에서 구할 수 있다. 이출입액은 『朝鮮輸出入品七年對照表』(1911)에서 1901~1904년의 자료를 수록하고 있고, 『朝鮮貿易年表』에서 1905~1937년,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42)에서 1938~1942년, 『朝鮮統計年鑑』(南朝鮮過渡政府)에서 1943년의 자료를, 그리고 『朝鮮經濟年報』(朝鮮銀行調查部, 1948)에서 1944~1945년의 자료를 구할 수 있다.

수입출품 및 수이입품의 유별 구성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는 위의 자료에서 구할 수 있다. 다만 1908~1909년은 『韓國外國貿易月表』에서, 그리고 1938~1939년의 자료는 『釜山港貿易概覽』에서 구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들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일제강점기 부산항의 통관을 기준으로 한 무역통계 자료를 수집하였다.³⁾

수집된 통계자료의 정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다음의 몇 가지이다. 첫째 재수이출입액을, 특히 재수출을 제거하는 문제이다. 재이출입액의 비중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적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수출의 경우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수출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18~1920년의 경우 전체 수출액에서 재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7%와 6.1%, 19.1%이다. 특히 1920년의 경우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비중이다. 1935~1937년에는 각각 16.8%, 9.0%, 13.7%에 이르고 있고, 1938~1939

3) 『20세기 부산지역 경제통계의 이해와 부산경제의 변동분석』, 부산광역시, 2004. 103-106쪽.

년의 경우는 그 비중이 각각 38.7%와 53.0%로 수출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크다.

따라서 순수한 수출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거하는 것이 옳다. 문제는 전체의 시계열에서 이를 제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수출품의 유별 구성을 보면 '기타'가 소포 우편물과 재수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포우편물의 비중이 아주 적다는 강한 가정을 하면, 전체 수출액에서 기타를 모두 제외하는 방법으로 재수출을 제외한 수출입액을 구할 수 있다.⁴⁾ 그런데 1920년까지는 재수출품이 외국산과 일본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1921년에서 1934년까지는 일본산의 재수출 통계는 나와 있지 않고, 모두 외국산의 재수출만 집계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산의 재수출은 여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⁵⁾

또 현재 수집하여 정리하는 자료도 통관을 기준으로 한 자료이고, 부산항이 통관을 기준으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였는가가 분석의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재수출이입액을 포함하여 집계한다고 해도 분석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재수출입액을 모두 포함하여 집계하였다. 다만 1930년대 후반 수출액의 상당 부분이 일본산 제품의 재수출이었

4) 이출품의 경우 1920년까지는 조선산의 이출액이며, 기타의 재이출액에는 일본산과 외국산이 포함되어 있다. 1921~1922년의 이출액은 조선산과 외국산이며 재이출액은 일본산이다. 1923년 이후의 재이출액은 통계로 잡혀 있지 않다. 따라서 1923년 이후의 이출액에는 조선산, 일본산 그리고 외국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5) 외국산의 재수출 통계만이 제시되어 있는데, 1924~1926년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9.5%, 4.4%, 5.8%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년도의 경우는 1.0% 전후로 대단히 적다.

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출액에 대한 분석을 행할 경우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⁶⁾

두 번째 문제는 시기에 따라서 유별분류기준이 상이하었다는 점이다. 유별 분류는 일제시기 무역품 분류기준(『朝鮮貿易年表』)을 따랐고, 제2분류(1909~1921)를 기준으로 하였다. 다음의 <표 1> 수이출품 유별 분류의 기준이 변화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제2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모두 정리하였다.

<표 1> 수이출품 유별 분류

제1분류(1908)	제2분류(1909~1921)	제3분류(1922~)
제1류: 곡물 및 종자	제1류: 곡물 및 종자	제1류: 穀物穀粉澱粉 및 종자
제2류: 음식물	제2류: 음식물	제2류: 음식물 및 연초
제3류: 연초 (제2류)	제3류: 약재, 염료, 도료 및 油蠟	제3류: 皮毛骨角牙殼類 및 同製品 (제6류)
제4류: 皮毛角牙類 (제6류)	제4류: 絲縷布帛 및 布帛製品	제4류: 油脂蠟同製品藥材化學藥, 염료 및 도료 (제3류)
제5류: 약재, 염료 및 도료(제3류)	제5류: 광물금속 및 금속제품	제5류: 絲縷繩索布帛衣類 및 衣類附屬品 (제4류)
제6류: 油 및 蠟 (제3류)	제6류: 잡품	제6류: 광물, 광·금속 및 동제품 (제5류)
제7류: 絲縷 및 布帛 (제4류)	기타 : 소포우편물, 재수출품	제7류: 잡품 (제6류)
제8류: 광물 및 광석 (제5류)		기타 : 소포우편물, 재수출품
제9류: 금속 및 금속제품 (제5류)		
제10류: 잡품 (제6류)		
기타 : 소포우편물, 재수출품		

자료 : 『20세기 부산지역 경제통계의 이해와 부산경제의 변동분석』, 부산광역시, 2004. 106쪽에서 인용.

제1분류의 제3류 연초는 제2류로 분류하였다. 또 제2분류에서는 연초가 잡품으로 분류되는데 이 역시 제2류로 재분류하였다.

6) 전국의 경우 재수출 비중은 부산항보다도 훨씬 크다. 김낙년(2001, 172)에 따르면, 이 비중은 1935~39년 간에는 36~49%에 이르고 있다.

기타의 소포우편물 및 재수출품은 잡품에 포함시켰다. 나머지 분류는 기본적으로 순서가 바뀌는 정도의 재분류만으로도 일관된 기준으로 통일할 수 있다. <표 1>의 제1분류와 제3분류의 괄호 안에 기입된 분류가 조정된 분류를 나타낸다.

수입입품의 경우는 수입출품에 비해 분류가 세분화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1922년~1928년까지는 16분류이며, 1929년부터는 17분류 체계이다. 1929년 이후에는 제12류 '礦物 및 同製品'과 제13류 '陶磁器硝子 및 硝子製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는 제3분류의 제12류에 해당하는 것이다.

<표 2> 수입입품 유별 분류

제1분류(1908~1909)	제2분류(1910~1921)	제3분류(1922~)
제1류: 곡물 및 종자 (제1류) 제2류: 음식물 (제1류) 제3류: 砂糖 및 糖菓類 (제1류) 제4류: 주류 (제1류) 제5류: 皮毛角牙類 (제9류) 제6류: 藥材, 化學藥 및 製藥 (제2류) 제7류: 油 및 蠟 (제3류) 제8류: 染料顏料塗料 (제2류) 제9류: 絲縷繩索 및 同材料(제4류) 제10류: 布帛 및 布帛제품(제4류) 제11류: 의복 및 부속품 (제5류) 제12류: 紙 및 紙製品 (제6류) 제13류: 광물 및 광석 (제9류) 제14류: 금속 (제7류) 제15류: 금속제품 (제7류) 제16류: 차량, 선박, 학술기 및 기계 (제8류) 제17류: 연초 (제1류) 제18류: 잡품 (제9류) 기타: 소포우편물, 여객휴대품 재수입품	제1류: 음식물 제2류: 약제 및 염료도료 제3류: 油 및 蠟 제4류: 絲縷繩索 및 布帛 제5류: 의복 및 부속품 제6류: 紙, 紙製品 및 문구 제7류: 금속 및 금속제품 제8류: 車輛船舶學術器·器械 및 同부분품 제9류: 연초 (제1류) 제10류: 잡품 (제9류) 기타: 소포우편물, 여객휴대품 철도소하물, 재수입품	제1류: 식물 및 동물 (제9류) 제2류: 穀物穀粉澱粉 및 종자(제1류) 제3류: 음식물 및 연초 (제1류) 제4류: 皮毛骨角牙殼類 및 同製品 (제9류) 제5류: 油脂蠟 및 동제품 (제3류) 제6류: 藥材化學藥製藥 및 毒發藥 (제2류) 제7류: 染料顏料塗料 및 填充料(제2류) 제8류: 絲縷繩索 및 동제품(제4류) 제9류: 布帛 및 포백제품 (제4류) 제10류: 의류 및 동부속품(제5류) 제11류: 紙, 紙製品 서적 및 회화 (제6류) 제12류: 광물 도자기 초자 및 동제품 (제9류) 제13류: 광 및 금속 (제7류) 제14류: 금속제품 (제7류) 제15류: 시계학술기총포선차 기계류 (제8류) 제16류: 잡품 (제9류) 기타: 소포우편물, 여객휴대품 재수입품

자료 : 『20세기 부산지역 경제통계의 이해와 부산경제의 변동분석』, 부산광역시, 2004. 106~107쪽에서 인용.

이를 제2분류의 제9류는 제1류에 포함시킴으로써 기본적으로 9분류체계로 정리하였다. 제3분류의 제6류 중 화약 및 폭발물은 제2분류의 잡품에 속하며, 기타 항목은 모두 잡품에 포함시켜 정리하였다. 나머지는 역시 분류의 순서와 명칭이 변경되었을 뿐이다. 이 역시 각 분류의 괄호안의 숫자가 제2분류의 체계로 정리되었음을 나타낸다.⁷⁾ 실제의 분석에서는 음식료(제1류), 화학(제2류+제3류), 방직(제4류+제5류), 종이(제6류), 금속(제7류), 기계(제8류), 기타(제9류)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사소한 몇 가지 문제가 있다. 1900~1909년에 이르는 기간은 아직 강점 이전의 기간이므로 수출입 통계로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강점기에는 일본 및 다른 외국과의 무역을 각각 수출입 및 수입입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1910년 이전의 기간도 이 기준에 맞추어 정리하였다. 또 『朝鮮經濟年報』에 제시된 1940년부터 1942년까지의 수출액은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42)에서는 수출액으로 되어 있다. 또 1940년 이후에는 일본 이외의 지역과의 수출입 통계는 공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朝鮮經濟年報』의 1944년과 1945년의 값은 수출액으로 간주하여 정리하였다.

7) 1908~1909년은 매월의 값을 합계하여 구했고, 1938~1939년은 주요 품목의 통계를 무역품 분류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구했다. 다만 몇 개 년도에서 유별 구성의 합계와 통관기관 통계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1904년의 수산물 유별 합계와 1907년과 1909년의 수산물 유별 합계 및 1936년 수산물 유별 합계 등이다. 그러나 그 차이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작다. 예를 들면 『朝鮮貿易年表(1936)』의 통계에 따르면 수입 합계는 7,997,443 엔인데, 유별 합계에 따르면 7,993,863 엔으로 3,580 엔이 적다.

Ⅲ. 일제 강점기 부산항 무역의 전개

1. 부산항 무역의 개관

통관을 기준으로 한 부산항 무역의 추이를 보인 것이 다음의 <그림 1>이다.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1904년을 저점으로 하여 1919년에 이르는 기간까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⁸⁾ 이후 1922년까지는 감소하였다가 다시 1926~27년에 이르는 기간까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1930~1932년의 기간에 저점을 형성하고,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실질가격⁹⁾을 기준으로 하면 보다 분명하게 구분된다. 다른 시기는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한 경우와 동일하고¹⁰⁾, 1925년까지의 상승, 1925년부터 1931년까지의 급격한 감소, 1931년을 저점으로 하는 상승이 차이가 있다. 1920년의 수이출 감소는 전국적인 것이었다. 이는 3·1운동 이후 일본의 식민지 지배상의 혼란이 수이출에 영향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전국은 회복된 것에 비해 부산은 1922년까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이 당시 주요 수출품이었던 미곡의 수출이 부산 이외의 지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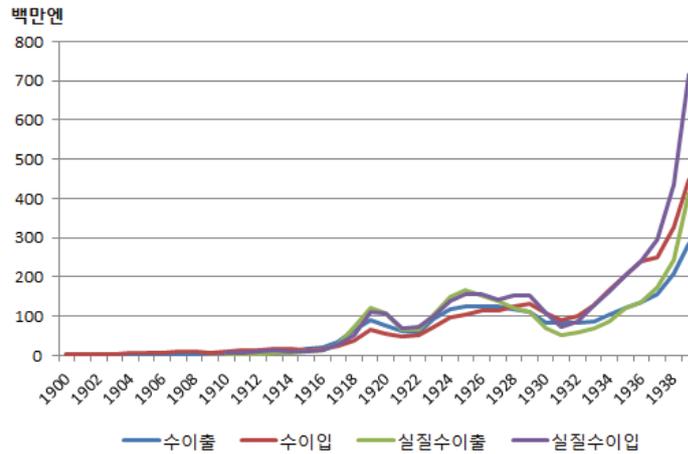
8) 1911년에 예외적으로 수이출이 전년도 대비 3.1%(명목기준)감소하고 있다. 1911년의 감소는 대두와 미곡의 시장출하가 지연됨으로써 수출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부산경제사』, 496~497쪽.

9) 낙성대경제연구소의 홈페이지(http://www.naksung.re.kr/xe/sd_index)에서 제공하는 디플레이트를 사용하였다. “<표Ⅱ~62> 상품 무역의 추이(1935년 가격)와 디플레이트”에는 수출, 이출, 수이출, 수입, 이입, 수이입 각각에 대해 1935년을 기준으로 하는 디플레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낙년, 2006, 269~272. 참조.

10) 실질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1914년에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전 년도의 성장이 무려 62.1%나 진행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다.

중심으로 급증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부산경제사』, 584~585쪽)
 수이입의 경우도 기본적인 변화경향은 수이출과 동일하다¹¹⁾.
 다만 수이입의 경우는 1929년 혹은 1930년까지 증가하였다가
 1931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점 정도가 상이하다.

<그림 1> 부산항 무역의 추이(단위 : 백만엔)



수이출과 달리 1920년대 후반에도 부산항을 통한 수이출이 급증
 한 것은 부산항이 수출의 중심항으로 성장한 것이 첫째 이유이다.
 특히 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한 수입의 증가가 중요한 원인이다. 둘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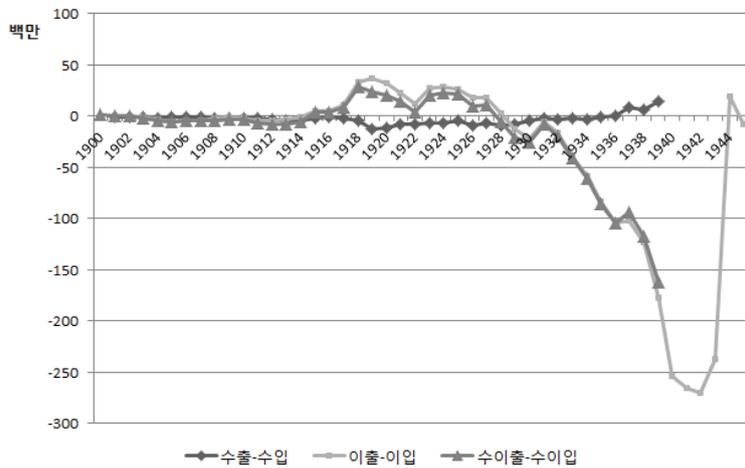
11) 수이입의 경우,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1906년, 1909년, 그리고 제1차 대
 전 초기인 1914~1915년에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1908년도
 수이입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는 인용한 자료가 『釜
 山日本人商業會議所年報』(1909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후에도 마
 찬가지인데 『부산경제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자료와 본 연구에서 제시
 하는 자료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제1차대전 초기 수이입의 감소는 수입의 감
 소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부산경제사』 488~489쪽 참조.

‘부산항 제2기축항공사, ‘제1기 부산시구개정공사’로 인한 건축자재의 이입증가, ‘조선방직(주)’와 ‘일본경질도기(주)’ 등의 설립에 따른 자원, 원료의 이입증대 등이 원인이었다. (『부산경제사』, 585~586쪽)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의 수이출은 일본경제의 경기동향, 그리고 세계적 경기동향과 그 궤를 같이 하면서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또 뒤의 <그림 4>의 수이출입액에서 이출입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일본제국과의 관련이 강화되어 가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역수지를 통관을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 다음의 <그림 2>이다. 기본적으로 수이출입의 경향은 이출입의 경향에 의해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뒤에서 <그림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산지역의 수이출입액에서 이출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그림 2> 부산항 통관을 기준으로 한 무역수지의 추이(단위: 백만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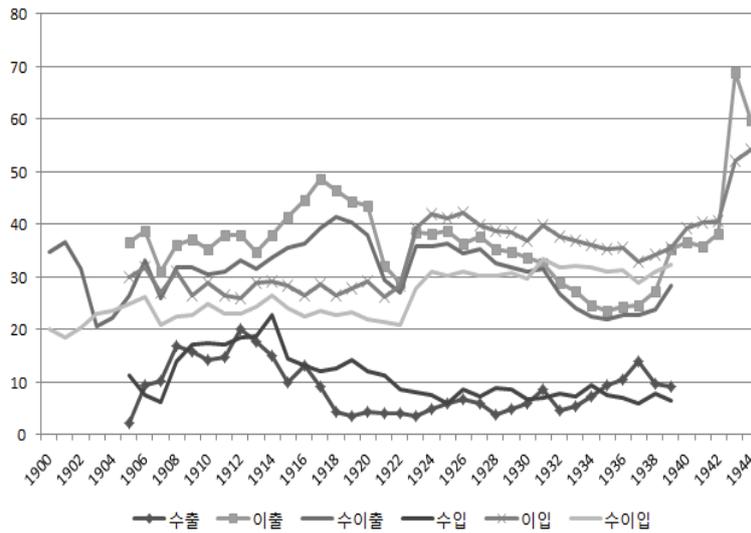
수출에서 수입을 뺀 상품수지는 1937년 이후의 3개년을 제외하면 모두 적자이다. 그러나 재수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흑자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반면 이출입의 경우를 보면 1915년부터 1928년까지는 이출이 이입보다 많았고, 수출입을 기준으로 하면 적자였긴 하지만 전체 수이출입을 기준으로 도 흑자를 보이고 있다. 한 번의 변동은 거치긴 하지만 1931년 이후부터 1942년 까지 적자 폭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1931년 이전의 기간에 이출이 많았다는 것은 원료등의 수탈이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뒤의 유별 분석의 결과를 보면 제1류인 곡물 및 종자의 이출은 줄고 있고, 오히려 제4류인 絲縷布帛 및 布帛製品의 이출이 증가하고 있다. 앞선 지적처럼 미곡을 중심으로 한 이출은 다른 항구의 성장이 진행된 반면, 부산지역은 조선방직 등의 생산으로 인한 이출이 증가하였다. 이는 부산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1931년 이후는 이입이 오히려 이출을 넘어서고 있는데 주요한 이입품목은 역시 방직제품과 기타이다. 특히 대부분이 공업제품이라는 점에서 조선이 일본의 공업제품의 시장이라는 성격이 강화되는 과정이고,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부산항이라 할 수 있다.

부산항의 지위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다음의 <그림 3>의 전국의 수이출입에서 부산항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이다.

먼저 주목되는 점은 전국 수출입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것에 비해 이출입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수출의 경우는 1912년까지는 전국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20.0%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이출에 비하면 그 비중이 현저히 낮았고, 이후 감소하여 1918년 이후는 10%미만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¹²⁾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전국에 대한 부산항 수이출입 비중의 변화(단위 : %)



이출의 경우는 보면 기본적으로 1917년까지 증가하였다가 1935년에 이르는 기간은 다소의 변동을 포함하지만 감소하고 있다. 이 역시 미곡등의 이출이 다른 항구로 이전되면서 비중이 감소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1935년부터 1937년 까지 일정한 비중을 유지하던 이출이 193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시통제경제로 들어가면서 부산항의 전략적 중요성

12) 예외적으로 1936년은 10.5%, 1937년은 13.9%의 비중을 보이고 있지만 1930년대 후반의 통계에 재수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산으로 수입된 물품의 재수출이 이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입의 경우는 1914년까지 비중이 증가하였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부산항으로의 수입이 다른 항구로 이전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입의 경우는 1922년에 이르는 기간은 20% 전후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1938년 까지는 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지만 30% 이상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1938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입항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된 것은 1922년 이후이고, 이 역시 전시통제경제 이후 그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출에 비해 이출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항상 높았다는 점과 수입에 비해 이입의 비중이 항상 높았다는 것은 부산항이 일본과의 거래에 보다 높은 비중을 가진 항구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그림 4>에서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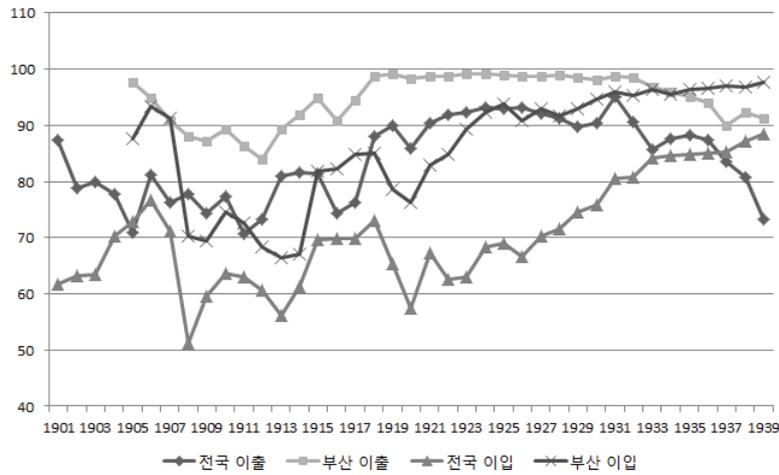
또 다른 특징은 1922년 이전에는 이출의 비중이 이입의 비중보다 높았지만 이후에는 역전되어 1942년까지는 이출의 비중이 더 높다. 즉 부산은 일본과의 무역에 특화되어 있으면서 일제강점기 전반은 주로 이출항으로서의 기능을 하였고, 1922년 이후에는 주로 이입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¹³⁾

그리고 1937년 이후, 특히 1942년 이후 이출입 비중이 모두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어서 전시통제경제로부터 전쟁말기로 가면서 부산항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13) 또한 수출과 이출의 비중의 차이에 비해 수입과 이입의 비중이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는 부산항이 전반적으로 이입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앞의 <그림 2>와도 정합적이다.

다음의 <그림 4>는 수이출입에서 이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수이입에서 이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전국과 부산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4> 수이출입에서 이출입이 차지하는 비중(단위 : %)



이출입이 전체 수이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식민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부산은 전국에 비해서도 비중이 높다. 191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은 이출의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후 증가하여 1918년부터 1932년에 이르는 기간에는 거의 98%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후 감소하여 1937년에는 90% 이하로 감소하였고, 이후 다시 증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국의 경우는 1931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의 경향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수출에 재수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따라서 부산은 일본으로의 이출이 수이출의 절대적인 지위를 차

지하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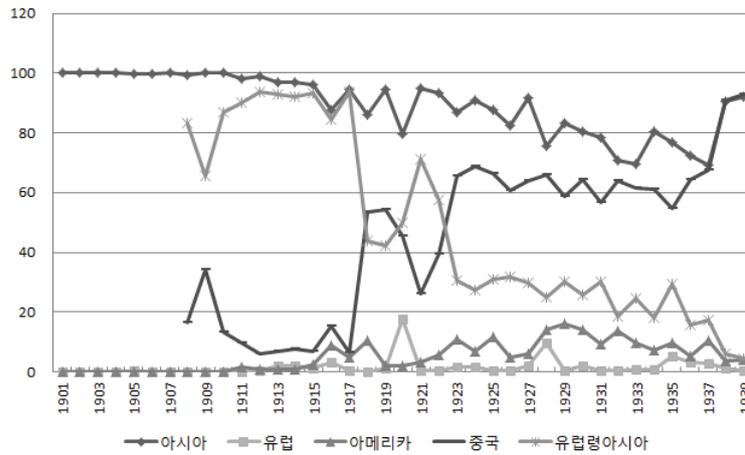
수입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기본적인 변화의 경향은 전국과 마찬가지로 1918년 이후 그 차이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였고, 1923년을 정점으로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1928년까지는 20%p를 넘는다. 또 193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수입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역시 수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경향과는 다소 상이다. 즉 전국에 비해 수입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격차보다 더 큰 향구였고, 식민지 말기로 갈수록 수입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의 <그림 3>과도 정합적이다.

2. 부산항의 국별, 상품유별 무역의 전개과정

부산항을 통한 국별수출의 경향을 보면 1910년 이전에는 거의 아시아지역에 국한된 무역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소폭의 증가가 나타났고, 1915년 이후에는 변동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추세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는 반면 아시아 이외의 지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적어도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할 때 까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 중에서도 1917년까지는 유럽영 아시아에 대한 수출이 주를 이루었고, 이후에는 주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12년에는 유럽영 아시아에 대한 수출이 전체 대 아시아 수출의 93.8%에 이를 만큼 절대적이었다.

1917년 93.5%를 기점으로 하락하여 1924년에는 30.4%, 1939년에는 4.6%까지 하락하였다. 예외적으로 1920년부터 1922년의 기간은 각각 50.0%, 71.0%, 57.4%였다. 반면 중국은 19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23년 이후는 거의 항상 60% 이상이었고, 1935년 이후에는 더욱 더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32년 이후는 만주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5> 부산항 국별 수출 비중의 추이 (단위 : %)



- 주 : 1) 아시아는 중화민국, 만주국, 관동국, 홍콩은 물론이고 유럽령(영국, 프랑스, 네델란드, 러시아)아시아도 포함되어 있다.
 2) 아메리카는 미국과 캐나다의 합계이다.
 3) 유럽은 영국, 프랑스, 독일의 합계이다.
 4) 기타는 아프리카, 호주 및 미상의 국가, 그리고 보세공장의 통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림에서 생략하였다.
 5) 중국과 유럽령아시아의 비중은 대 아시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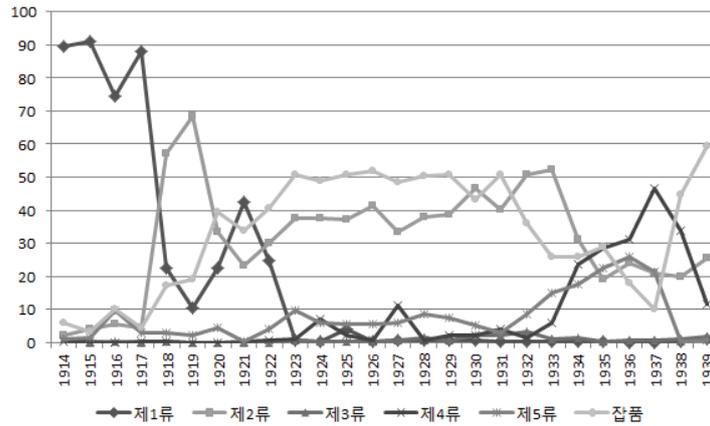
반면 유럽지역은 특정한 년도, 예를 들면 1920년, 1928년, 1935년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였지만 전체적인 비중은 미미한 것이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에 대한 수출은 1919년부터 대공황이 발생하는 1929년까지의 추세는 기본적으로 증가추세였고, 이후 변동을 포함하지만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부산항을 통한 무역이 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면서 미국을 향한 수출과 재수출이 적어도 대공황이전에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세계무역체계에 편입되어가는 과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비중이 여전히 높고, 1932년 이후는 만주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 것은 일본 제국의 분업연관이 확대되는 과정이었고, 1937년 이후 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의 증가는 전시경제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일본 제국과의 관련이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품유별 구성의 변화를 보면 이러한 특징이 더 잘 드러난다. 먼저 곡물 및 종자인 제1류의 경우는 초기 수출의 거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 1917년에 88.2%를 정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반면 제2류인 음식물의 경우는 1917년을 저점으로 급격하게 상승하여 1919년에는 68.3%에 이르고 있다. 수출이 곡물 및 종자에서 이를 가공한 음식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제1류의 비중은 급격히 하락한 반면 음식물의 경우는 1921년을 저점으로 1933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경향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¹⁴⁾

14) 제3류에 해당하는 약제, 염료, 도료 및 油蠟는 192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932년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6> 부산항 유별수출의 추이(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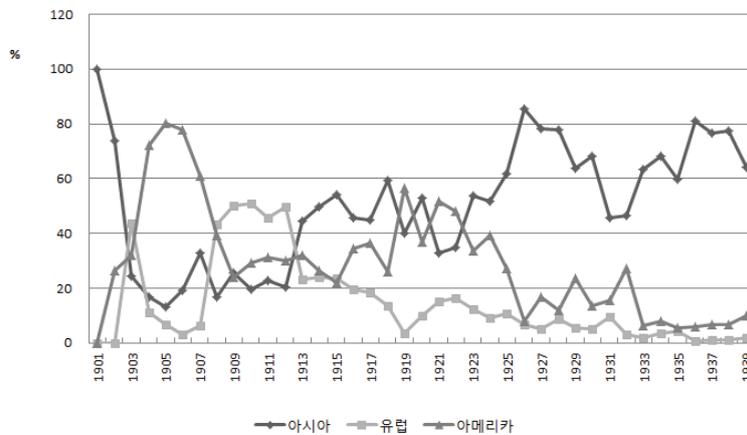
한편 제4류인 絲縷布帛 및 布帛製品은 1920년대 다소 증가경향이 있었지만 그 비중이 낮았고, 1932년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37년에는 그 비중이 46.7%에 이르고 있다. 제5류인 광물금속 및 금속제품 역시 1931년까지는 10% 미만의 비중이었지만 1932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1936년에는 26.0%에 이르고 있다.

이는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의 기간은 주로 1차 산품, 혹은 이를 가공한 것의 수출이 중심이었고, 1930년대 들어서 공업제품을 중심으로 수출품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물론 재수출이 포함되어 있지만 조선내의 공업생산의 증가가 수출의 증가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업제품의 수출은 모두 1936년 혹은 1937년을 정점으로 급격하게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그 자리를 다시 제2류와 3류의 상품이 메우고 있다. 이는 전시통제경제가 시작되면서 무역 구성의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별 수입의 경향을 보면 1905년을 저점으로 하여 192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은 기본적으로 아시아로 부터의 수입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그 변동이 굉장히 심하다.¹⁵⁾ 1926년에 85.5%로 정점에 이른 이후 대공황기간인 1931년과 1932년까지 아시아의 비중이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26년까지는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이후에는 1930년과 1931년을 제외하면 유럽령 아시아로 부터의 수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 7> 부산항 국별수입의 추이(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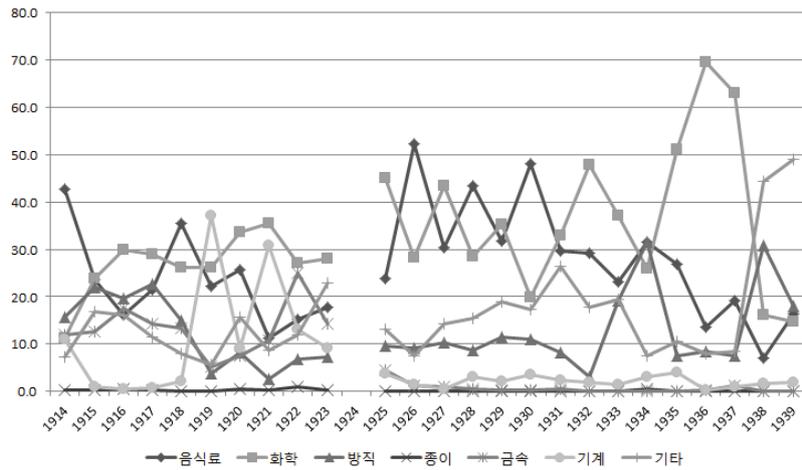


15) 1912을 저점으로 1915년 혹은 1918년까지 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증가하였다가 다시 1921년까지는 감소하였고, 이후 다시 증가하여 1926년에 정점에 이르고 있다. 1926년에 85.5%에 이르고 있다.

유럽으로 부터의 수입은 1904년을 예외로 하면 1906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1908~1912년 사이는 40%를 넘었다. 이후 경향적으로 저하하고 있다. 아메리카의 비중의 움직임도 유럽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1901년부터 증가하여 1907년까지는 60%가 넘는 비중을 보이고 있고, 이후 감소하였지만 20% 이상을 차지하였다. 1915년부터 다소 증가하여 1919~1922년간에는 40%를 넘는 비중을 보이고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양 지역을 합하면 1905년에 86.8%를 정점으로 하락하지만 1910년대 후반에는 40% 이상의 비중을, 그리고 1920년대 초반까지는 적어도 50%전후의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즉 추세적으로 보면 1905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적어도 1920년대 초반까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의 중국과 유럽령 아시아로 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비중은 약화된 것이고, 이는 전간기 보호무역적 경향의 확대와도 관련된 것으로 추측된다.

유별 수입의 경향을 보면 제1류에 속하는 음식료품의 비중이 1916까지는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이후 1918년까지는 증가의 경향을 보였고, 그 비중도 35.5%에 이르렀다. 이후 1921년까지는 감소하였고, 다시 증가하여 1926년에는 무려 52.4%에 이르고 있다. 이후 경향적으로 저하하여 1938년에는 7.1%까지 하락하고 있다. 앞선 국가별 분석결과와 결합하면 1926년까지는 음식료품을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수입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 부산항 유별 수입의 추이 (단위 : %)



화학의 경우는 1914년 11.1%를 기록한 후에 경향적으로 증가하여 1936년에 69.6%를 기록하였고, 이후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석유를 비롯한 연료등이 주요한 수입품이었다. 1936년 이후에 전시체제로 들어서면서 이들의 수입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방직의 경우는 1917년까지 증가하였지만 이후 급속하게 하락하여 193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은 기본적으로 10%전후의 낮은 비중을 보였고, 1933년에 급증하여 1934년에는 31.6%에 이르렀고, 이후 다시 급감하고 급증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1917년까지의 수입증가는 주로 영국산 면포의 수입을 주종으로 한 것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1934년 이후에는 일본으로 부터의 이입과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이입이 증가하면 수입은 감소하고, 이입이 감소하면 수입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계의 경우는 1918년부터 비중이 상승하여 1919년과 1921년에는 20%를 넘어섰지만 곧 바로 비중이 급격하게 떨어져 5%미만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금속의 경우는 1916년에서 하락하였다가 1920년부터 증가하여 1922년에는 22%에 이르렀지만 기계보다 더 극심하게 비중이 하락한다. 이 역시 초기에는 일본으로부터의 기계와 금속을 대신하여 수입이 진행된 것이었지만 일본으로부터의 이입이 증가하면서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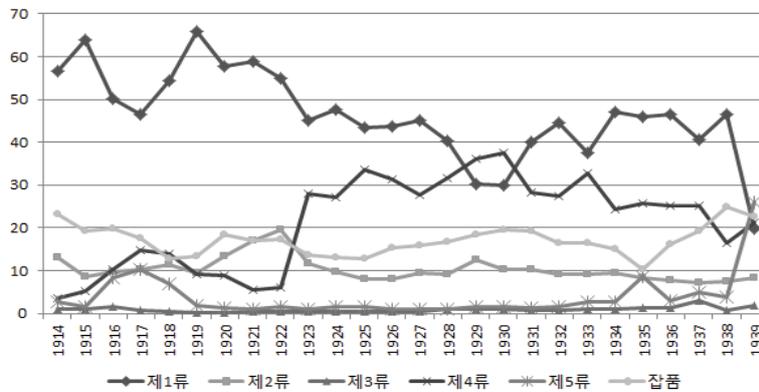
전반적으로 본다면 조선이라는 시장을 놓고 수입과 이입이 경쟁하는 모습이 관찰되는 것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경향은 일본의 공업제품의 조선으로 이입이 진행되면서 수입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에 음식료 등의 비중이 다시 높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과 수입은 전체 수이출입과 수이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은 앞에서 고찰한 것과 같다. 아주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유별 이출입의 경향이다. 다음의 <그림 9>는 유별 이출의 경향을 보인 것이다.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제1류의 비중이 아주 높았고, 경향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1919년부터 193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제1류의 이출 비중이 점차 감소하였다. 이는 앞선 지적처럼 미곡 수출항이 다변화된 것에 기인한다. 이후 다소 상승하여 40%의 비중을 보이고 있었고, 1939년에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소화공황 이후 일본내 조선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것

이 1927년 이후의 감소로 나타났고,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다시 부산항이 주요한 곡물수출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9> 부산항 유별 이출의 추이(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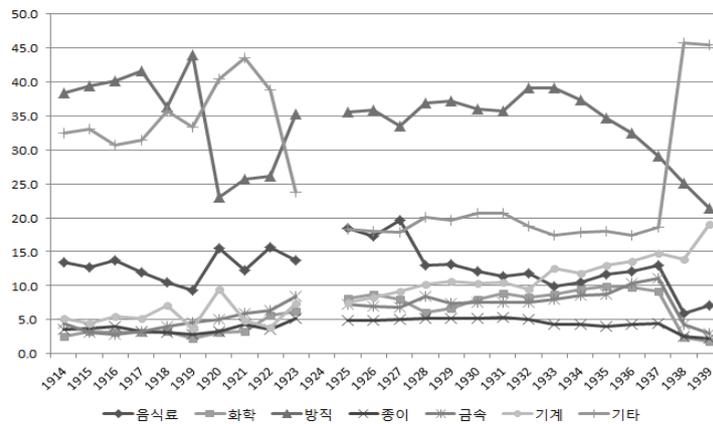
제4류에 해당하는 방직공업의 생산물은 192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30% 전후의 비중을 보이고 있었고, 1934년 이후는 20% 대로 감소하고 있다. 1922년 이후의 이출 증가는 조선방직등의 생산이 본격화한 것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절대액을 기준으로 하면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한 해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이후 1932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일본내 수요의 변동에 기인하는 것이었고, 1938년 이후의 급증은 전시체제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5류의 광물금속 및 금속제품은 1910년대와 1930년대 전반기에 이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식민지 지배 초기와 만주사변을 전후하여 자원의 이출이 급증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16) 전반적으로 보면 부산항을 통한 수출은 일본내 소비 수요의 변동과 일본의 필요에 따라 변동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전시 통제경제로 전환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해졌다고 할 수 있다.

부산항의 유별 이입의 추이를 보인 것이 다음의 <그림 10>이다. 유별이입의 경우는 방직공업의 비중이 아주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17) 1920년에 23.0%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지만 1933년에는 39.1%에 이르고 있다. 이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하여 1939년에는 21.4%까지 하락하고 있다.

<그림 10> 부산항 유별 이입의 추이(단위 : %)



16) 제2류인 음식물의 경우는 1922년에 19.6%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10% 전후의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잡품의 경우는 심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 1918년까지 비중이 하락하였다가 1920년에 18.3%까지 증가하였지만 이후 다시 감소하여 1925년에는 13.0%로 감소하였고, 이후 다시 증가하여 1931년에 19.4%에 이르렀다가 다시 감소하는 1935년에 10.2%, 1938년에는 24.8%에 이르고 있다.

17) 다음으로는 기타의 비중이 1910년대 중반에 높았다가 1921년에 43.6%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20%대에 머물고 있다. 음식료의 경우는 1919년부터 경향적으로 증가하여 1927년에 19.6%로 정점을 기록한 후 경향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방직공업의 비중을 대신하여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부문이 자본재, 혹은 중간재로 분류될 수 있는 제품들이다. 기계 부문은 비록 비중이 낮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1914년에 5.1%로 출발하여 1920년 전반에 다소의 변동을 포함하지만 경향적으로 증가하여 1939년에는 무려 19.0%에 이르고 있다. 화학과 금속의 경우도 비록 비중은 낮지만 기본적인 경향은 적어도 1937년에 이르기 까지 증가하고 있다. 굳이 차이가 있다면 금속이 먼저 증가하였고¹⁸⁾, 이후 1930년대 전반기에는 화학의 비중이 더 높았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는 식민지 공업화와 관련하여 일정한 정도의 중간재, 혹은 자본재의 유입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⁹⁾ 화학의 경우가 기계 보다 먼저 이입이 감소하는 것은 군수물자 생산의 필요 때문에 조선으로의 이출이 통제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화학은 1938년에는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금속제품의 경우는 제8류에 해당하는 車輛船舶學術器器械 및 同 부분품은 지속적으로 이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군수물자의 수송등과 관련한 필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제7류인 금속 및 금속제품의 경우는 1937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원료의 통제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출입의 경향을 보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출은 주로 일본내 사정에 따라 변동하거나 시국상황에 따라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산항은 이입항으로써의 기능이

18) 화학의 경우는 정점이 1935년으로 비중으로 보면 9.9%이다. 이후 미세한 비중의 감소가 진행되었고, 1937년에도 9.2%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절대액은 증가하고 있다.

19) 이에 대한 설명은 안병직·堀和生(1993, 12~28쪽)

다른 어떤 항구보다 높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내 공업의 성장에 따른 수요 변화, 혹은 일본의 전략적 필요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논문은 산재되어 있는 일제강점기 부산항 관련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일관된 체계와 원칙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가장 일관된 시계열을 갖추고 있는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하나하나의 숫자를 검토하였다.

분석은 정비된 시계열 자료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부산항 무역의 전개과정을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항은 부산은 일본과의 무역에 특화되어 있으면서 일제강점기 전반은 주로 이출항으로써의 기능을 하였고, 1922년 이후에는 주로 이입항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별 수출입을 검토한 결과는 부산항의 무역 지표의 변화는 세계경제에 편입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음과 동시에 일본제국과의 관계가 밀접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국별 무역의 동향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입품 구성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이출입을 분석한 결과 부산항의 무역은 일본제국과의 관계가 밀접해 지면서 일본내 수요, 일본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주요한 이출입품의 구성이 변화해 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조선내 공업의 일정한 성장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는 시계열적인 변화과정을 추적한 것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보된 시계열 자료는, 다소 불

충분한 점이 없지 않았지만, 이후 후속 연구를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남겨진 과제가 더 많다. 일제강점기 부산항 무역을 세밀한 부분까지 분석하지 못한 것은 본 논문의 한계이며, 차후의 과제이다. 수이입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시대상, 경제정책 등과의 관련하에서 무역 변화의 해석 등은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朝鮮總督府, 1910~1939, 『朝鮮貿易年表』
- 제1차 통감부, 1906~1907, 『統監府統計年報』
- 朝鮮總督府, 1942, 『朝鮮總督府統計年報』
- 朝鮮總督府, 1911, 『朝鮮輸出入品七年對照表』
- 朝鮮總督府, 1916, 『朝鮮輸出入品十五年對照表』
- 南朝鮮過渡政府, 1949, 『朝鮮統計年鑑』
- 朝鮮銀行調查部, 1948, 『朝鮮經濟年報』
- 관세국, 1908~1910, 『韓國外國貿易月表』
- 釜山稅關, 各年판, 『釜山港貿易概覽』
- 안병직·堀和生, 1993, 「총론-식민지공업화의 역사적 조건과 그 성격」, 안병직·中村哲 편, 『근대조선공업화연구』, 일조각, 1~47쪽.
- 부산경제사연구회, 2004, 『20세기 부산지역 경제통계의 이해와 부산 경제의 변동분석』, 부산광역시. 102~110쪽, 187~207쪽.
- 김낙년, 2001, 「조선무역의 장기동향」, 안병직편, 『한국경제성장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165~219쪽.
- 堀和生·김낙년·박기주, 2006, 「무역과 대외수지」, 김낙년편,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 240~273.

- 부산상공회의소 · 부산경제연구소, 1989, 『부산경제사』, 414~704쪽
- 낙성대경제연구소의 홈페이지(http://www.naksung.re.kr/xe/sd_index)

【국문초록】

본 논문은 산재되어 있는 일제강점기 부산항 관련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일관된 체계와 원칙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가장 일관된 시계열을 갖추고 있는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하나하나의 숫자를 검토하였다.

분석은 정비된 시계열 자료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부산항 무역의 전개과정을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항은 부산은 일본과의 무역에 특화되어 있으면서 일제강점기 전반은 주로 이출항으로서의 기능을 하였고, 1922년 이후에는 주로 이입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별 수출입을 검토한 결과는 부산항의 무역 지표의 변화는 세계경제에 편입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음과 동시에 일본제국과의 관계가 밀접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국별 무역의 동향 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입품 구성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이출입을 분석한 결과 부산항의 무역은 일본제국과의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일본내 수요, 일본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주요한 이출입품의 구성이 변화해 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조선내의 공업의 성장도 확인할 수 있다.

핵심주제어 : 일제강점기, 부산항, 수출, 수입, 이입, 이출, 상품유별구성

【Abstract】

**The development process about trade of Busan
Harbor in Colonial Period**

Jang, Ji-yong / Pusan Univ.

For this study I collect every available data about trade of Busan Harbor in colonial period, and correct the error. And analysis the change of the development process about trade of Busan Harbor. As a result, Busan harbor was specialized in export to japan in early colonial period, and import from japan after 1922. Second, the development process about trade of Busan Harbor proved increasing relation between Korea and World trade or Japan.

Key Word : Colonial Period, Busan Harbor, Import, Export, Import from Japan, Export to japan.

투 고	심 사	완 료
2012. 10. 27	2012. 11. 27	2012. 12. 15